

제주사회복지신문

제20호
2009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대림산업, 5년째 '사랑의보금자리' 제공

작년까지 저소득 47가구 새단장...올해도 12가구 리모델링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년째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제주지역 저소득가정에 '사랑의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대림산업(주)(대표이사 김종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500여만 원을 투입,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저소득 47가구의 집을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새단장했다.

올해에도 27일 오전 제주시 화북동 김모 할머니(85) 집에서 이동한 회장과 대림산업(주) 이원민 소장, 강남수 화북동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시작을 알렸다.

이원민 소장은 "기업이익의 지역환원을 목적으로 4년전부터 해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저소득가정 가운데 사회복지사와 대림산업(주) 담당자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한 1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보일러 시공 및 수리, 지붕 및 전선수리, 전기배선교체, 부엌개량, 지붕도색 등



△5월 27일 제주시 화북동 김모 할머니집에서 열린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 발대식에 이동한 회장(오른쪽에서 6번째), 대림산업 이원민 소장(7번째), 강남수 화북동장(8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실시된다.

사업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주요 자재 등은 대림산업(주)에서 제공하고, 도배와 장판교체, 천장수리 등 소규모 공사에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탠다.

이날 자원봉사자 10여명은 할머니의 살림을 모두 꺼낸 뒤 도배지에 풀을 발라 벽과 천장에 붙이고, 장판을 새로 깔고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하는가 하면 부엌에 싱크대를 설치해 추운 겨울 마당에 나가지 않아도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도를 연결했다.

이동한 자원봉사연합회장은 "어르신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며 "바람 갈 아서는 새집을 지어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만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사업이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랑나눔푸드마켓' 16일 개장



결식아동과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나눔푸드마켓'이 오는 16일 문을 연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시 일도2동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건물 1층에 132㎡ 규모의 푸드마켓 매장을 마련해 6월 16일 개장할 예정이다.

푸드마켓은 식품제조업체 등이 기부한 식품을 저소득 가정인 이용자에게 불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으로, 기부받은 식품을 나눠주기만 했던 푸드뱅크보다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다.

푸드마켓에는 밥, 빵, 라면, 반찬, 어육제품, 햄 등 주·부식류는 물론 음료수, 과자, 과일, 건과류 등 간식류와 곡류, 야채, 육류, 양념 등 식재료, 기타 생활용품 등이 갖춰진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는 매월 3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푸드마켓 사업에는 국비 1억 8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아카데미 6월 교육 안내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포절 작성

일시 : 6월 10일 14:00-18:00
내용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등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파워포인트 활용교육

일시 : 6월 19일 10:00-18:00
내용 :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파워포인트 핵심기술 10선 등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일시 : 6월 29일-7월 2일
내용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용 실무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저소득층에 한시생계비 지원
시설 탐방-해정원장-인직업재활시설
- 사회복지소식 4·5면
어린이재단 눈길·소식마당
자조모임 민들레·발족·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세미나

- Desktop Pulishing
- Visual Design
- Total Printing
- Prepress

책 속에
향기를 담을 수는 없을까?

같은 계절, 같은 내용의 책이라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독자에게 좋은 느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고뇌속에서 비롯됩니다.

새미출판기획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책 속에 향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만드는 회사 -

새미출판기획
SAEMI COMMUNICATIONS

출판·홍보 관련 컨설팅 / 브로셔, 팸플릿,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쇄 / 토털 선거기획 / 취재 및 원고 대필

우) 690-800 제주시 건입동 709 Tel. 752-3656 Fax. 752-3658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비 지원

제주도, 예산 83억 추가 확보...생활안정 도움 기대

최근 경제난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8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

구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도 각각 8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재산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이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가구에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한시 생계비 지원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올해 초 실태조사를 벌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민간지원 연계 등을 통해 9138가구에 20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물속에선 장애가 없어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 지부가 마련한 ‘중증 시각장애인 수중재활교실’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5월 20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쿠아로빅을 즐기고 있다.

“사랑의 안마·마사지 받으세요”

제주도, 6월부터 ‘어르신웰빙서비스’ 실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출장 안마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배치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웰빙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근골격계 및 신경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질환 및 소득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해 매월 18일까지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보험

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다. 장애인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 없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1인당 월 2회씩(회당 1시간) 6개월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회당 2000원, 이 외는 회당 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삼다웰빙사업단(시각장애인복지관 721-7799, 서귀안마원 738-7188)과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723-0505)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근육 및 관절의 퇴행예방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 특성과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제안 공모를 거쳐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개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5월 17일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2009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 서귀포시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체육대회에서는 명랑운동회, 매직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방문건강관리사업, 유아 놀이시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송죽원 “봄소풍 다녀왔어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5월 13일 장애인과 부모,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물 자연휴양림으로 즐거운 봄소풍을 다녀왔다.

어버이의 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리는 뜻깊은 행사를 했으며, 보물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을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한길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이날 행사를 위해 35인승 버스를 지원했다.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단속 ‘효과만점’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단속한 이후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등 특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무단주차 계도 사업에 지난 3월부터 장애인 60여명을 투입한 결과 2개월 남짓 43건을 적발,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인력 부족 등으로 계도 및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2007년 54건, 지난해 49건의 단속실적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장애인에게 적발된 차량의 경우 단속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제주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불법 주차단속 및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연중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자원을 요청했다.

중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읍·면에 파견돼 환경정비와 시설도우미 등 단순노무에 종사했었다.

빛누리실버연극단, 대통령 표창 수상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빛누리실버연극단’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인 빛누리실버연극단은 노인학대를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께는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극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자존감 고취 및 자아 실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2200만원을 확보해 4월 28일 제2기 연극단원을 선발, 5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제2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4개월 간 강도 높은 연습을 마친 후 도내 노인 및 일반인들에게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댄스스포츠 배우며 건강도 관리해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제주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하민철)과 공동으로 서귀포시 동흥동장애인지원협의회와 연계해 중문상업고등학교 장애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댄스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기 힘든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실시되는 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을 습관화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제주에 장애인댄스스포츠의 활성 및 보급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은 장애청소년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댄스스포츠교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오름을 찾아서’ 자원봉사자와 석굴암 등반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지적, 지폐성 장애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등산교실’의 일환으로 5월 9일 ‘오름을 찾아서’ 동아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석굴암을 다녀왔다.

4월 11일 등반에서 빵과 음료수를 지원했던 ‘오름을 찾아서’ 동아리는 이번 산행에서도 손수건을 선물로 나눠줬다.



유진재활센터는 “등산교실은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는 행사로 많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시설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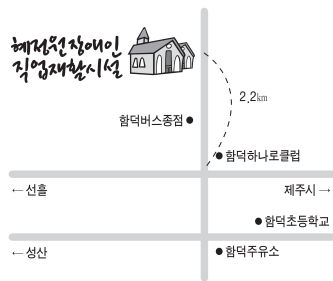
(19)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과 희망을 빛는 사람들

장애인 30명 도자기상패 등 만들며 구슬땀...희망이 주렁주렁

여름의 신록이 초록빛 물빛으로 주위를 가득 적시는 날,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있는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이하 혜정원)을 찾았다. 현재 혜정원에는 만 13세 이상 지적장애인 등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혜정원을 이용하려면 초기면접과 시설적응기간(1주일)을 거치고 난 후 사회회의를 통해 공과배치 및 직업적응훈련을 갖는다. 그 후 지원고용이나 취업알선 과정과 취업 후 적응지도의 절차를 가지게 된다.



혜정원은 'We can we do all(우리 장애인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라는 가치를 이념으로 2000년 12월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개원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능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재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 10명의 근로장애인 과 20명의 훈련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과 적응훈련반 액세서리 및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 도자기상패 만들기 사업 등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근로인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적응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회적응훈련과 직업준비·직업수행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훈련, 직업평가 등의 다양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혜정원의 주력사업인 도자기상패 만들기 사업은 장애인의 정성과 축적된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접착되고 있다.

흙을 반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현무암 돌로 찍는 수작업, 건조(10일), 사포작업, 초벌구이, 유약 바르기, 2차 가마구이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상패 종류 또한 도자기, 크리스탈, 원목, 트로피 등 다양한 구성을 갖췄다. 직사각형, 타원형, 정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민숙 원장은 "생산품의 판매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결석이 잦았던 장애인과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량을 더 확충해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특별함이 아닌 그저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과 혜정원의 장애인들은 노력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문의=783-9920.

<이명자 명예기자>

제주 장애인복지 · 인권 2년 연속 전국 최고

한국장총 2009 연구조사 결과 70.31점 1위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5월 6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연구조사 결과 제주도는 100점 만점에 70.3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충청남도가 69.10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경상남도(63.87점), 충청북도(62.29점), 대전광역시(62.07점), 부산광역시(59.97점)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57.14점으로, 지난해 51.00점에 비해 6.14점 높아졌다.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서비스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 5개 영역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별적 지원과 규정된 법적기준 달성을 위한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일배움터, 제주대병원에 플라워샵 개점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모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5월 4일 제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에 플라워샵(사진·717-2763)을 개점,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사랑을 나눕니다. 푸르름을 전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판매되고 있는 화훼상품은 사랑의 꽃향기가 되어 제주대병원을 향기롭게 하고 있다.

개점 기념으로 제주대병원 1층 로비에 마련된 도자기화분 전시회는 물



론 병원 내방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근심에 쌓인 이들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찾아주고 있다.

일배움터는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화분 홍보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지도를 높여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대회

도사회복지협의회·도자원봉사센터 각각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12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김태환 제주지사과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 사회복지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사회복지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위>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범도민 청결·친절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도 5월 13일 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내 전체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자원봉사자들은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청결, 질서, 친절맞이에 앞장서 역량을 발휘하기로 결의하고,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운동을 벌였다.



도내 곳곳 누비는 어린이 기자단 '눈길'

역사 현장 등 취재 후 기사 작성...일간지에 실리기도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드림 어린이 기자단' 맹활약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가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드림 어린이 기자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생 12명으로 구성된 '드림 어린이 기자단'은 월 2회 도내 생태와 역사의 현장을 두루두루 기행하면서 취재한 뒤 직접 기사를 작성해 자체 홈페이지와 지방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기자단은 3월 28일 발대식(사진)을 갖고 첫 기행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 일출봉을 찾았다. 역사생태 해설전문가 김원순씨의 인솔 아래 성산일출봉의 지형적 특성과 그 곳에 얽힌 전설, 주변의 생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은산(평대교 5년) 어린이는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열심히 기행을 다녀서 좋은 기사를 써보겠다"고 말했다.

4월 25일에는 '4·3 역사 기행'으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를 비롯해 북촌리 바위그늘 선사유적지, 4·3공원 등을 둘러보며 제주의 아픈 역사를 체험했다.

박재은(세화교 4) 어린이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잔인하고 가혹하게 죽어간 4·3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슬펐다"며 "앞으로 기자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제주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김소연(세화교 6) 어린이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옮겨 쓰는 것이 재미있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자연이 우



리에게 주는 소중한 깨닫게 되어 이제는 꽃을 함부로 따지도 않는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김소연 어린이의 '4·3의 아픈 현장을 찾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지난달 한 일간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박미란 사회복지사는 "아이

들이 기자단 이름으로 활동을 한 후로 일반 자연학습을 다닐 때와는 달리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서 "아이들이 기자단 활동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아이들과 함께 그리는 세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5월 5일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제8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이들과 함께 그리는 세상'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50여명과 자조모임회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영화관람, 휴애리에서의 생태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선물증정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에월리경로당 노인에미용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5월 17일 한국뷰티고등학교에서 에월리 경로당 노인 30여명에게 얼굴 마사지와 발마사지, 안마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은 "손자녀와 같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머리도 만져주고 마사지며 안마도 해주니 무척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도내 유일의 미용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뷰티고등학교와 지난해 산학결연을 맺은 바 있다.



아가의집서 음악공연 펼쳐 새샘음악치료소

새샘음악치료소(원장 홍인실)는 5월 18일 아가의집을 방문해 작은 음악공연을 펼쳤다.

새샘음악치료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날 공연 발표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수행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다.

소/식/마/당

해정원 아가의집 난타공연 펼쳐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5월 16일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청소년적십자 합동 선서식 및 입단식에서 난타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지적장애인들의 주도적 문화생활을 위한 여가지원활동프로그램'인 난타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가요와 동요에 맞춰 진행돼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제주케어하우스 가족한마당 개최



제주케어하우스는 5월 9일 장애인과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공원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감사의 편지 낭독, 가족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

아라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아라주공관리사무소(소장 강성구) 아라주공임차인회, 청년회와 함께 5월 7일 2009년도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라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 복지관 경로대학 풍물팀과 댄스팀 공연, 제주 출신 통기타 가수 양정원씨의 축하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롤로의집,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롤로의집 직원과 생활인 30여명은 5월 14일 제주소방교육대를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소방교육대 교관들로부터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는 요령을 비롯해 소화기 화재 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구체적인 교육을 받았다.

화북초 제2회 꿈누리 책축제 개최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꿈누리 책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팝업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풍선아트', '재미있는 이야기속으로', '나는 동화속 주인공', '책 퍼즐 만들기', '인형극장',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책은' 등 재미있는 코너가 마련돼 아동들이 책 읽기는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안노인복지센터, 행복한 봄나들이



성안노인복지센터(원장 김옥희)는 3월 28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한 봄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 40여명의 어르신들은 더마파크를 방문해 청기즈칸 일대기 공연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하는 발걸음! 희망찬 내일”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자조모임 '민들레' 발족

봄기운이 가슴 깊숙이 퍼지던 햇살 좋은 날,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자조모임 '민들레'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내보였다.

제주케어하우스(원장 정석왕)는 생활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조모임 형성 및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활동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29일 발족식(사진)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 고영미씨(제주장애인요양원)를 회장으로 선출했고, 단정희씨(고상수 회장과 길벗회 김미현 회장을 지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회원 10여명에게 회원증서를 일일이 나눠줬다.

제주케어하우스,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애덕의집, 사랑의집 4개의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0여명으로 구성된 민들레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외에도 멘토링프로그램,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자조모임에 대해 강의를 한 여성장애인 상담소 김경미 소장은 “만날수록 행복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며, 스스로



확하여 실천하고, 주위의 동료를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조모임의 탄생을 축하했다.

정석왕 원장은 “생활시설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조모임 활동이 추상적이지 않도록 운영의 중심 및 방향을 잘 잡아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마른 땅에서도 굵고 곧은 뿌리를 내리고,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 한송이의 꽃을 이루는 민들레처럼 도내 각 장애인시설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가 소통하며 긴 생명력을 지닌 아름다운 한송이 꽃으로 민들레 흙이 되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양정선 명예기자>

알림/마당

이루다사업단 동아리축제 13일 개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루다사업단은 오는 1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운동장(해녀박물관 옆)에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단합을 위한 동아리축제를 마련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아동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축구대회를 비롯해 밴드·합창공연, 토끼어리전대회, 미니올림픽 등이 진행된다.

이루다사업단은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도내·도외 리더십캠프, 지역사회 문화 창출과 자아효능감 향상을 위한 문화동아리,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습서비스 및 학교상담, 자기성장을 위한 전문 집단상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 등을 위한 부모특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784-8280.

“여성장애인 리더 DB구축 대상자 추천하세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까지 도내 장애인단체 및 기관, 각 여성단체, 관공서, 개인 등으로부터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리더 DB구축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도내 여성장애인 리더 DB를 구축해 향후 전문 인력풀을 형성하고 여성장애인의 멘토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753-4980.

‘착한가게 캠페인’ 참여업체 늘어

제주 사랑의 열매가 실시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는 업체와 지역업자들이 늘고 있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중소기업의 업체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면서 나눔활동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제주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착한가게’ 11곳, ‘착한병원’ 3곳, ‘사랑나눔일터’ 11곳 등 모두 25곳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는 학원과 수산업체, 식당, 영농법인 등 참여업체가 다양하며, 착한병원에는 치과 3곳이 가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눔일터에는 문주란여행사와 칠십리여행



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매월 기탁하는 금액만 373만원에 달한다.

연말에 집중된 일회성 기부를 탈피해 연중 기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우리나라 대표 판화가인 이철수씨의 작품으로 만든 현판이 제공된다. 또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너와나, 통(通)하는 관계코칭 프로젝트’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너와 나, 통(通)하는 관계코칭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아발견을 통한 관계형성 및 청소년기에 꼭 지켜야 할 이성교제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귀포지역 10개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감정과 가치관을 교류해 성숙된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바른 성(性)가치관을 정립시킴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일 장애인 “서로 우정 나눴어요”

4월 24-26일 2009 한일 장애인문화교류 열려

제주애덕의집(원장 이대원)은 한·일 장애인들이 만나 우정을 나누는 ‘2009년 한-일 장애인 문화교류’를 실시했다.

장애인, 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일본 전통 북 연주단체 ‘돈마이’ 팀과 어린이회 활동에서 만나 성인이 될 때까지 23년째 활동해 오고 있는 전통북 서클 ‘히쇼’ 팀이 4월 24일 제주애덕의집을 찾았다.

한일시민문화교류협회의 ‘나는새’ 강영미 대표의 인솔로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이들은 시설장애인예능발표회와 황사평 사랑나눔공동체(가톨릭의 집,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일배움터, 제주애덕의집)와의 한-일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고 도내 관광지

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방문한 아마다카 치코씨는 “비록 의사소통은 잘 안되지만 제주애덕의집을 돌아보며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국경을 떠나 한결같은을 알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을 위해 세심히 배려하는 마음을 시설 곳곳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한-일 장애인 문화교류는 격년마다 일본과 한국을 서로 방문하며 정보교환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국외여행 기회를 제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향후 일본 장애인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끈을 맺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제주양로원 실내치료정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원에 치료복지협회(회장 한동휴)는 5월 16일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을 방문, 이동식 실내치료정원을 조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양로원은 치료정원이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노인시설을 찾는 이웃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더욱 따뜻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울간병봉사회 후원효도관광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호) 회원 20여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보은의집 및 실버하우스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내 효도관광 나들이를 실시했다.

한울간병봉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소외받고 있는 보은의집 및 실버하우스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봉사 및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칼럼

해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고 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지원위원

논어 위정편에 보면 노나라의 대부 맹의자의 아들인 맹무백이 공자에게 찾아가 효가 무엇인지 묻는 구절이 나온다. 공자는 맹무백의 질문에 효를 '부모유기질(父母唯其疾)'이라 하였다. 한문의 특성상 이 구절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공자가 중시한 효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에 더욱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었다.

아전인수격 인식으로 시각차

후한시대의 마옹이란 학자는 '기(基)를 자식으로 보고 "병 이외의 것으로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동시대의 왕충은 '기(基)를 부모로 보고 "오직 자식은 부모의 질병만을 근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위 두 사람의 해석에 반기를 든

이가 바로 송나라의 주희, 곧 주자이다. 주자는 마옹과 왕충의 해석이 모두 공자의 본뜻과 다름을 주장하였다.

주희는 '부모유기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걱정이다."

맹무백의 당돌한 질문에 공자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그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순수한 마음을 맹무백에게 말한 것이다. 효란 자식이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라 마옹과 왕충의 해석보다 주자의 해석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옹과 왕충이 효는 응당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했다면, 주자는 치사량의 효를 해석한 것이 아닌 내리사랑의 부모마음을 아는 것이 효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비단 고전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석을 하는 자의 가치관이다.

주자는 당시 융성한 불교라는 거대한 철학적 선택을 넘어야 하는 유학자의 책무가 있었다. 문치주의를 추구한 송나라를 불교가 아닌 새로운 유학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가치관이 생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경전 해석은 매우 정결하고, 명료하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시대 주자같은 해석자 기대

현 시국을 보고 있노라면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 동일한 상황적 맥락에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영리병원 문제도 그러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보호법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아전인수격 인식과 해석의 차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자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내용마저 달라진다. 하물며 절대적인 종교 경전마저 해석의 차이에 의해 내용이 변화하는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는가. 요즘 들어 주자와 같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해석자가 나와 주길 바라는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참언) 글의 마무리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접했다. 짧은 유언의 일부인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전 그분을 무지막지하게 조롱했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착잡하다. 삼가 명복을 빈다.

기고

정혁이의 이야기 3(중 · 고교시절)



김 선 옥

정혁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는 가까워서 매일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이면 데리러 갔는데 중학교는 아침에 버스에 태워 주면 학교 길은 혼자 버스를 타고 와야 했다. 그런 일들이 정혁이에게 쉬울 리가 없었다. 개학을 하고 며칠 버스를 타는 훈련을 하고, 집이 그리 멀지 않아 버스를 타지 못하는 날에는 걸어오는 방법도 익혔다.

아침에 1000원을 가지고 가면 점심시간에 500원어치 간식을 사 먹고 남은 500원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그 당시는 버스비가 500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했다.

수업이 끝나면 교실 청소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놀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혁이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청소도 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노는 일도 없었다. 자기가 몇 반인지, 친구 이름이 무엇인지, 중학생이 되어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덩치는 다 자랐지만 생각은 미처 자라지 못한 중학생 시절이다 보니 정혁이에게 바보라는 이유를 달면서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온 몸에 멍이 들고 성할 날이 없었다. 아이가 모자란 것은 알면서도 폭력이 가해지는 현실에 참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에게 호소하며 힘들게 중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를 결정하려니 갈등이 생겼다.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면 힘든 마음 때문에 특수학교를 보내는 것이 어찌면 정혁이에게도, 나에게도 편한 게 아닌 가뭇잠을 설치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일반학교를 보냈다. 중학교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인지 폭행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수업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인 학교생활은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부를 하기 싫으면 잠을 자고 체육시간에는 혼자 교실에서 놀며 학교생활을 했다.

엄마인 나도 정혁이에게서 손을 많이 놓았다. 서투러도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꾸준한 지도로 어설피지만 나름대로 생활 규칙이 몸에 배어 자기의 일을 해 나갔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뒤틀리고 자세가 엉망이 되어서 매일 매일 아침운동만은 반드시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한 줄넘기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하게 돼 아침마다 줄넘기를 하였다.

그리고 신문읽기와 책읽기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였다. 신문을 통해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책을 읽으며 사고가 생겼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엄마를 슬프게 한다는 것도 알게 시작했다.

시론

다름에 대한 수용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유기체인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무기체인 물건에는 물건이 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종이를 자른답시고 책상위에서 함부로 난도질을 하여 책상에 상처내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하물며 물건에도 권리가 있는데 살아 숨쉬고 생각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다양한 개성이 삶에 새로운 영감 제공

경청과 공감으로 차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DNA를 통해 수 만년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차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우리는 '다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다름에 또 차별을 두어서 고통을 가르고 동질화할 수 있는 것끼리 헤쳐 보인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인간의 DNA로 이어져 온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인류가 지금까지 개체를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들로 가능한 것이었다.

나와 다름을 가진 사람은 개성이 다를 뿐이다. 이 개성의 차이가 사회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상업적으로 떠들어대고 부추기는 개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왜 내 주위에 있는 개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재단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가령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밴 인식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아닌 차이, 그리고 이를 개성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손쉬운 방법은 경청과 공감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듣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기화 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르고 예단하는 성급함 없이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실험을 해보자. 분명 새로움을 느낄 것이다.

각종 정치현안과 지역현안에 있어 절충과 합의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주의와 주장보다, 흔히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조하는 양자 다름에 대한 수용으로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로 옮겨 보았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60,000	92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750,000	750,000
복지사업후원	2,190,000	587,6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세미나

“제주 실정 맞는 사회적 기업 조례 제정돼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5월 20일 제주퍼시픽호텔 대연회장에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는 김동주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최영열 일배움터 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5월 20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적 기업 운영·지원방안 논의 필요”

김동주 교수 장애인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대안

김동주 교수는 '장애인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중앙정부와 정책조율 미흡 ▲사회적 기업 실태파악 전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지원방식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른 시·도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인증주체는 노동부이지만 제주도는 인증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라면서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인증과 관련된 아무런 조례나 준비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제주도가 인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가칭)제주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증, 사회적 기업의 모델개발과 통합적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저변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분야에 대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 이들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어떤 방식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한지 구명하기 어렵다”며 “실태파악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방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화 된 적이 없으며 사회적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창구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조기 정착 중요”

최영열 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따른일자리 활성화 방안

최영열 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지원방식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시설 유형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과 예산지원방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는 시설유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에 있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유형개편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생산직중도 우선구매제도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개편 기준에 맞춘 인력지원과 예산반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원장은 “시설 유형개편은 근본적으로 운영기준과 인원배치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래의 시설 지원기준이 변화돼야 한다”며 “작업활동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기능재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 장애인 급식비와 물류비,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성공요인으로 우선구매제도의 조기 정착을 들었다. 그는 “시설운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 또는 마케팅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정부예산구조나 예산요구방식에 비춰볼 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품질 인증이나 경영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구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증장애인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를 공공기관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시설 유형개편방안은 수익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 및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실제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기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sign is
another Salesman

디자인은

또 하나의 세일즈맨

좋은 디자인은 상품에
고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회사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열림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뭉친
젊은 디자이너들로 조직화, 전문화된
능동적인 팀입니다.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에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트레킹 리플릿을
2008 우수홍보물에 선정하였다.

DESIGN YEOLLIM

디자인열림

팜플렛, 카다로그, 브로셔, 리플렛, 정기간행물, 패키지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82.64.746.0775 fax. 82.64.746.0774

